

98.1.22 신학강좌 3

「신학의 사조」 2(둘째, 셋째 목요일)

I. <지난 강좌의 요지>

1. 왜 역사를 배우는가?

1) 기독교의 상대성, 2) 오늘을 이해하기 위한 지평

2. 12 강좌 계획 -- 어거스틴에서 포스트-모던까지

-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어거스틴 | 2. 토미즘 |
| 3. 종교개혁 | 4. 경건주의 |
| 5. 자유주의 | 6. 근본주의 |
| 7. 신정통주의 | 8. 실존주의(볼트만) |
| 9. 정치신학(몰트만) | 10. 해방신학(구티에르즈, 로즈 매리 큐터) |
| 11. 환경/생명신학 | 12. 포스트-모던 신학 |

II. 어거스틴(Aurelius Augustinus, 354-430, 76세, 알제리아 산) 보강

1. 성례전의 유효성(형식적/실질적)

validity -- 객관적

legality -- 교회법적 & efficacy -- 신자에게, 실제적

*/ * 원죄=첫 인간의 죄에서 성/피를 통하여 유전된다.

죄의 자리=인간의 본성, 혈관

2. 은총은 불가항력적이다. 이중예정론 --> 기독교 운명론의 모태

3. 예수 =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, 로고스(요한복음)의 지상 구현

예수의 영=로고스, 혼= 흠없는 혼, 육= 고난받고 죽었다.

*/ * <우리도 그런 구현받을 수 없는가?>

III. 토마스 아퀴나스(Thomas Aquinas, 1225-1274, 49세 줄),

1. 年譜

1) 로마와 나폴리 중간 지역에 있는 아퀴노에서, 귀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다.

2) 5살 때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입

3) 15살-19살, 나폴리대학에서 수학(부친 사망),

4) 19살, 도미니크 수도원으로 옮김, 21-23살 -- 파리에서 수학

5) 23살 (콜롱에서 수학) 사제 서품받다.

6) 27살, 신학석사, 31살, 교수 시작

7) 49살, 회의 참석차 여행 중 사망.

8) 1277 정죄

9) 1323 시성(聖人으로 인정됨)

2. 주요 저서

1) 대이방인 대전(Summa contra gentiles)

2) 신학대전(Summa theologiae)

3) 성경 및 Peter Lombard's Sentences 주석서

3. 당시 주요 사건/정황

1. 십자군 전쟁

그 부산물로 스페인의 아랍인 학자들(Averroists)에 의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가 서방 세계에 도입됨

2. “대학,” “과학”이 수도원 학교, 대성당 학교에서 시작됨.

4. 사상적 배경

1. 소수의 아리스토텔레스 수호자들(대다수, 이단시함)

두 세계/체제: <영원한 신, 섭리>의 기독교

<영원한 세계 + 신의 섭리 부정, 개인 불멸 부정>

1277년, 파리대학의 Siger 교수는 교황청에 종신 연금됨.

2. “(중세)의 근대주의자들”

Albert the Great, 그 제자 Thomas -- 두 체제 조화 시도

3. 신학적 과제:

신진 교양인들에게 어떻게 기독교 메시지의 신빙성을 전할까?

5. 기본/주요 사상

1. <과거의 유산과 토마스의 자리> 현대의 카톨릭 신학자 한스 쾨

“어거스틴이 없었다면, 토마스는 없었다.”

“아리스토텔레스를 모르고는 토마스를 이해할 수 없다.”

1) 존재에는 서열이 있다.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선하다.

2) 인간의 자유 의지는 상위 질서의 명령에 복종할 때 보존된다.

3) 행복은 최고의 질서인 신과의 연합(복, visio dei)에서 온다.

4) 천상의 신학이 아니라 지상의 신학

5) 존재는 형식(혼)과 질료(재료/소재, 몸)의 결합이다(개체성).

6) 만물에는 원인이 있고, 원인은 결과보다 상위 질서이다.

2. 대학의 학과목이 된 “신학” -- 개념의 정의는 필수!

1) 신의 <존재> 문제에 대한 두 다른 전통

(1) 어거스틴, 안셀름의 “존재론적 증명”(신에 대한 내적 조명, 직관)

(2) 토마스 아퀴나스의 “우주론적 증명”(後驗論的 증명)

신의 존재는 「신앙의 대상」이 아니라, 논증이 가능하다.

2) 신을 아는 지식(신학)의 두 길

(1) 자연 신학(그의 공헌의 자리) -- 예: 신의 존재, 속성

(2) 계시 신학 -- 예: 신의 삼위일체성

신앙이 필요: 신앙은 “권위에 동의함”

3) 신의 존재와 속성

(1) 존재: “5 가지 길”, 그 사례

“운동”은 “최초의 부동의 동자”의 존재를 입증한다.

(2) 영원하다 -- 비시간적 존재가 아니다.

- (3) 필연적 존재 -- 우연적 존재가 아니다
- (4) 단순, 순수 현실체 -- 잠재성을 가진 복합 존재가 아니다.
- (5) 하나이다 -- 둘이면, 필연적인 단순/순수 존재가 아니다.
- (6) 완전하다 -- “선하다”와 동의어
- (7) 지성적이다/인식/사유한다 (主知主義).
- ** 실제로는 그 가신(만유의 원인)을 사유할 뿐이다.
- ** 의지는 “선에 대한 판단”에 종속된다.
- ** 따라서 “악”은 늘 부산물,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.
- (8)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나 최상으로 행복하다.
- ** 사랑 = 영향을 받음(잠재력의 실현)
- ** 행복 = 지성적 존재가 자신의 선을 관조함에서 온다
 <궁극적으로는 일(활동, 지배, 봉사)에서 오는 게 아니다>
 <Boethius의 행복의 5요소> 쾌락, 재물, 권력, 존엄성, 명성
- (9) 토마스의 행복/구원론
-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
 저 세상에서는 “하느님을 봄”
 /* 이론은 실천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다.
- (10) 피조물의 창조 = 자유와 선의 산물 (필연적 결과는 아니다)
- ** <同種의 다수>보다는 <다수+다양성>이 더 이상적 세계상
- (11) 초자연적 은총(물질)은 자연을 완성한다.
- 성례전을 통하여 전달된다.
- 인간의 자연(이 세상에 관한 이성)은 타락하지 않았다.
- (12) 구원은
- 은총(성례전 참여)으로 시작(義人이 됨)
- 선행을 통하여
- 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(덕에 대한 보상으로서)
- (13) 자기-애는 「신(이 주신 피조물의 선의 실현)을 위하여」
- 정당하며, 이웃 사랑 보다 근본적이다.
- (피조물인 나의 존재 = 이미 신의 선에 참여해 있다)
- (14) 예수 죽음은 “필연”(안셀름) 아니다. 그러나 “적합하였다”
- 인간의 penalty 지불, merits 확보, good samples 남겼다.
- (15) 신의 예정=피조물의 개별적 존재 이전의 선택+ 타락 허용
- 우리는 선택을 확신할 수 없다 => vigilance 강조

6. 우리가/에게 할 말